JW홀딩스

췌장암 조기발견 진단키트 中서 '혁신기술' 특허 획득

초기에 나타나는 CFB로 진단
2019년 하반기 탐색적 임상 진행

JW홀딩스의 췌장암 조기발견 진단키트가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혁신 기술로 입증 받았다.

JW홀딩스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키트' 원천기술에 대한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JW홀딩스의 원천기술은 췌장암 초기와 말기 환자에서 각각 발현되는 물질을 동시에 활용해 암의 진행 단계별 검사가 가능한 혁신적인 진단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연세대 백융기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았다.

지금까지 췌장암 말기 환자에서 주로 반응하는 암 특이 항원 'CA19-9'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사용됐지만, 초기 환자에서 나타나는 'CFB(보체인자 B)'로 췌장암을 진단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세계에서 JW홀딩스가 유일하다.

JW홀딩스는 췌장암 조기진단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국내는 2016년, 일본에선 2018년 취득했으며 현재 미국, 유럽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JW홀딩스는자회사JW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CFB를 포함하는 다중바이오마커 측정 키트와 진단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탐색적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췌장암은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만 매년 약 6600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췌장은 다른 장기들에 둘러 싸여 있는데다 췌장암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렵다. 이 때문에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11%로 전체 암 종 중 생존율이 가장 낮다.

JW홀딩스 관계자는 "췌장암 조기진단 기술에 대한 중국 특허 등록으로 글로벌 고부가가치 체외진단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 췌장암뿐만 아니라 패혈증 조기 진단키트의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진단 분야에서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암학회 등 학계에서는 현재까지 췌장암에 대한 조기 진단 마커가 없기 때문에 2020년에는 췌장암이 암환자의 사망 원인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모도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췌장암 치료 및 진단 관련 시장은 2015년 17억3000만 달러(약 2조원)에서 연평균 13% 성장해 2020년 31억8700만 달러(약 3조 7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지난 해 남이섬에서 열린 '2018 훼라민큔과 함께하는 동행캠페인'

갱년기 여성 '동행 캠페인' 참가자 모집

동국제약, 훼라민큔 모델과 함께

동국제약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서 오는 22일 진행하는 '훼라민큔과 함께하는 2019 동행 캠페인'의 참가자를 15일까지 모집한다.

'동행 캠페인'은 걷기와 같은 가벼운 야외활동과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과 정맥순환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2013년 시작해 춘천 남이섬, 서울의 안산 자락길, 남산 순환로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를 거듭하면서 중년여성들이 자연의 정취도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대표 힐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행사는 22일 광릉수목원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에서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진행된다. 2018년 선정된 3기 '훼라민큔' 모델들도 함께해, 중년 여성으로서의 고민과 행복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40~5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달 15일(수)까지 훼라민큔 홈페이지와 동국제약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여성 갱년기 증상과 정맥순환장애에 대한 이해와 이들 질환의 관리를 돕고자 매년 동행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립수목원에서 완연한 봄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훼라민큐'는 여성갱년기 치료제 10년 연속 판매 1위 제품으로 서양승마(블랙코호시)와 세인트존스워트의 생약 복합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여성 갱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동시에 개선해 준다. 호르몬제가 아니면서도 동등한 개선효과를 나타내며, 호르몬제가 유발할 수 있는 유방암, 심혈관 질환 등의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의 일반의약품이다.

정맥순환 개선제 '센시아'는 센텔라 정량추출물이 주성분으로, 정맥의 탄력 향상과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다리가 붓거나 무겁고, 저리거나 아픈 증상을 완화해 준다.

/이세경 기자

'면역세포 변화' 폐암세포 새 성장기전 규명

정두현 서울대병원 교수 연구팀
인터루킨-17 분비해 종양성장 촉진
미세환경 연구 등 면역치료 타겟 제시

정두현 병리과 교수

고재문 전임의

종양에서 암세포는 특정 물질을 분비해 면역세포 분포를 변화시키면서 스스로 유리하게 암 미세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병리과 정두현 교수 연구팀(제1저자 고재문 전임의)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비소세포 폐암 환자 80명의 암 조직을 이용해 암면역 미세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폐암세포가 인터루킨-23을 분비해 선천성 림프구 세포의 아형 분포 변화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증가된 아형의 선천성 림프구 세포는 인터루킨-17을 분비해 종양 성장을 촉진했다고 전했다.

폐암은 유병률이 높고 예후가 불량한 종양이다. 최근 면역요법이 폐암 환자의 생존을 높여 이에 관한 암면역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종양 내에는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상호 작용이 종양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면역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이다.

비교적 최근 발견된 선천성 림프구 세포는 항원 특이성이 없는 면역세포로 천식 등 염증성 질환에서의 기능은 많이 알려졌으나 그동안 종양에서의 역할은 정립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비소세포 폐암의 암세포가 분비하는 인터루킨-23이 종양 내에 존재하는 선천성 림프구 세포의 아형1을 아형3으로 변화시키고, 증가된 아형3에서 분비하는 인터루킨-17가 폐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함을 밝혔다.

환자의 암조직을 이용한 체외 실험뿐 아니라 생쥐 종양 모델에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기전이 실제 체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증명했다. 따라서 폐암에서 '인터루킨-23, 선천성 림프구 세포 아형3, 인터루킨-17'의 축이 종양의 새로운 생존 전략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정두현 교수는 "이번 연구로 암세포와 면역세포 간 상호 작용이 폐암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냈다"며 "폐암 환자 치료의 새로운 타겟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임상 암 연구(Clinical Cancer Research)' 최신호 온라인에 발표됐다.

/이세경 기자

식약처, 오늘 식품안전의날 기념행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8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식품안전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식품안전의 날(5월14일)'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제조·유통·소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날 기념식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톰 하일런트 사무총장,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와 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선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노바케이메드 권석형 대표에게 산업훈장, 경희대학교 김해영 교수와 한림대학교 강일준 교수에게 근정포장,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오영희 부장 등 5명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식품안전 유공자 총 14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아트클래스 개최… "회사서 DSLR 배워요"

광동제약은 임직원들의 다양한 문화 생활을 위한 사내 문화강좌 '제7회 아트클래스'를 최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DSLR 감성사진 클래스'를 주제로 사진촬영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본사에서 전문 포토그래퍼의 사진강의를 들은 후 인근 예술의 전당에서 촬영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사는 봄 풍경과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사진 구도, 카메라 세팅 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참여자가 직접 촬영을 해보는 순서로 이뤄졌다. 각자 자유롭게 사진을 찍은 뒤에는 강사의 일대일 코칭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직원은 "평소 직접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취미가 있어 이번 강좌에 참여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봄을 맞아 강의와 출사를 함께 구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임직원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관절통 진통효과 2배 '제놀 파워풀 플라스타'

GC녹십자는 신제품 '제놀 파워풀 플라스타'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제놀 파워풀 플라스타'는 관절통과 근육통, 팔꿈치 통증 등의 증상 개선을 돕는 일반의약품이다.

이 제품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플루르비프로펜'이 기존 제품 대비 2배(40mg)로 함유돼 있어 통증 감소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피부 투과를 촉진하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약물의 피부 투과율을 높였으며, '멘톨' 성분이 함유돼있어 냉감효과를 통한 빠른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신축성이 뛰어난 원단을 활용해 무릎, 손·발목, 팔꿈치 등 다양한 관절부위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다.

GC녹십자는 이번에 출시된 '제놀 파워풀 플라스타'를 포함해 제놀시리즈 제품군을 총 11종으로 확대했다.

/이세경 기자